2025 05

제244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N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라피 박진희 作

02 지면 소개 및 구정 소식

03 구정 소식

04 [가정의 달 기념] 100만분의 1의 기적, 법1동 네쌍둥이를 만나다

05 [우리 지역 단체를 만나다] 아토맘

06 대덕구 맛집

07 [대덕구기관장협의회] 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08 열린의정

10 [인물인터뷰] 최은주 다온작은도서관장

11 대덕톡톡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5년 5월 7일(제244호)

한 번 가면(Go) 다시 오고(來) 싶은 '대덕 고래(Go來)여행' 운영

오는 11월까지 자연·역사문화 아우르는 코스 마련, 전문 해설사 함께해… 간식·향토 음식 점심 제공도

대덕구가 오는 11월까지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문화를 한껏 즐길 수 있는 대덕시티투어 '대덕 고래(Go來)여행'을 운영한다.

'대덕 고래(Go來)여행'은 '한 번 가면(Go), 다시 오고(來) 싶은 대덕구'라는 의미로, 친환경적이고 넉넉하며 풍요로운 대덕의 매력을 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덕구 주요 관광지와 역사 명소를 탐방하는 테마형 투어 프로그램으로, 도시의 생태와 문화 자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투어는 △생태 힐링 코스 △역사 힐링 코스 두 가지로 구성돼, 참가자들은 대덕구의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한눈에 체험할 수 있다.

1코스 '생태 힐링 코스'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청호,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계족산 황톳길, 지역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신탄진 오일장 등을 경유하며 청정 자연과 생동감 있는 지역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2코스 '역사 힐링 코스'는 동춘당, 소대헌·호연재 고택 등 선비 문화의 전통을 간직한 역사 유적지와 함께, 촬영 명소로 잘 알려진 오정동 선교사촌 등을 방문해 대덕구의 깊이 있는 역사·문화 자산을 만나볼 수 있다.

프로그램마다 전용 버스가 운영되며,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설명 투어 △차량 내 간식 △향토 음식 점심 제공 등 다양한 체험 요소와 혜택이 포함된 알찬 구성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여행 일정과 예약은 주관사 홈페이지(www.travel4u.co.kr)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2만 5000원이다.

대덕구,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 범죄 예방 탐지카드 설치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행정복지센터·복지시설 공중화장실 등 10곳에 설치
디지털 성범죄 캠페인 추진도… 안전 대덕, 여성친화도시 대덕 조성 총력

대덕구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및 공중화장실 등 10여 곳에 '불법촬영 탐지카드'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탐지카드는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 렌즈를 활용해 주변 디지털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3월 발대식을 가진 후 활동에 나선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불법촬영 탐지카드 설치 △수시 점검 및 관리 체계 구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 체계 마련 △불법 촬영 범죄 근절 인식 개선 교육 추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오정·송촌·신탄진권역별로 살고 있는 지역을 직접 돌아보며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문제점 등을 건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촬영 탐지카드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며 "불법촬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범죄 없는 여성친화도시 대덕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중장년 고독사 예방·지원 위해 유관기관과 '맞손'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기관 5곳과 업무협약 체결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마음 회복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정

대덕구는 청·중장년의 고독사를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대덕구가족센터(센터장 이진희),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성자),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법영),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유제춘),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곽의향) 등 5개 기관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와 5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및 마음회복·일상회복 등 특성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연결 기회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걸어서 대덕속으로

금강로하스대청공원

대청호와 금강에 접하고 있으며 강변을 따라 조성된 수변데크(1500m)를 걸으며 백로 등의 조류와 왕버드나무 군락지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각종 전시회 개최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청문화전시관과 △넓은 잔디광장 △파고라 △연못 △암석식물원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산림욕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메타세콰이아 숲속데크(355m) 및 쉼터 △유아숲체험원 등과 함께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등의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닌 넷이라네
기쁨도 네배, 행복도 네배

대덕구 법1동 네쌍둥이네를 만나다

야구의 명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면 9회 말 2아웃 주자 만루 상황에서 타자가 끝내기 만루 홈런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닐까.

대덕구에는 야구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 우연히 옆자리 응원객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만루 홈런과 같은 네쌍둥이 자녀를 얻으며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가족이 있다.

대전 대덕구 법1동에 거주하는 정재룡(37)·가미소(34)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21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지난 2024년 9월 13일 2남 2녀의 네쌍둥이를 얻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서하(아들), 시하(딸), 도하(아들), 율하(딸)의 아빠·엄마가 된 것이다.

사실, 두 사람은 결혼 당시 아이 없이 둘이서 잘살아보자 약속했던 딩크족이었다. 그랬던 이들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아내 미소씨가 확률적으로 100만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하다는 네쌍둥이를 임신한 것이다.

정재룡·가미소 부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걱정도 됐지만 우리 부부에게 4명의 자녀가 찾아온 것은 분명 인생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라는 확신으로 선택적 유산 없이 모두 낳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단태아보다 다태아는 주 수가 점점 찰수록 엄마와 아이 모두 위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네 아이를 뱃속에서 하루라도 더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미소씨는 네쌍둥이 평균 임신주수 29주를 넘기고 34주까지 버텼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 부부는 지난 2024년 9월 13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1분 간격으로 아들 둘, 딸 둘의 환상적인 조합으로 네 아이를 건강 하게 출산했다. 네쌍둥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에서 한 달간 의료진의 돌봄을 받아오다 모두 건강하게 가족 품에 안겼다.

네쌍둥이의 무사 귀환으로 모두 합쳐 여섯 식구가 되며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구나, 가족의 완성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애 최고의 기쁨을 맛봤다고 한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지만 네쌍둥이 엄마 미소씨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육아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오후에 베이비시터분이 오셔서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네 명의 아기들을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한다.

저녁에는 직장에서 돌아온 친정엄마와 아기 아빠 재룡씨 덕분에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는 미소씨는 "아기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좌충우돌 육아일기를 쓰겠죠(웃음). 네쌍둥이가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웃고, 놀고, 잠자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감을 아이들에게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재룡·가미소씨 부부는 네쌍둥이의 탄생에 대해 많은 관심과 축하, 그리고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지면을 빌려 무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많은 분의 축복 속에 태어난 네쌍둥이를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대덕구는 지난 연말 네쌍둥이의 백일을 맞아 직접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첫 어린이날이자 첫 어버이날을 맞는 정재룡·가미소 부부 가정을 방문해 축하를 전했다.

또, 아기 아빠 정재룡씨의 직장인 LX하우시스와 구본준 LX그룹 회장으로부터 출산 격려금도 지원받았다. 이밖에 정부·지방자치단체 등도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통해 아이들의 양육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네쌍둥이의 육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역시 집이다. 네쌍둥이를 포함 총 6명의 식구가 살기에는 법동 현재의 집이 너무 좁다. 불가피하게 친정집에 머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단 이들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들 부부의 확고한 신념이며, 같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넘어서 가족의 소중함과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편집자의 질문에 정재룡·가미소 부부는 "저희 아이들이 많은 분들의 축복과 관심, 그리고 사랑으로 크고 있는 만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립적인 아이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양육자분이 힘내서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육아를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흙으로 빚어 마음을 담다
아름다운 동행·토우·마음에 담다

‘아토맘’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이자’ 사업 공모로 본격 활성화
토우·시 낭송·캘리그라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문화적 소통 나눠
대한민국 대표 토우 작가 장순옥 작가, 대표 맡아 정성과 배려로 울림 선사
2024년 8월 작품전 대성황… “흙 만지며 행복 전파하는 활동 펼쳐 나갈 것”

딱딱한 회색빛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은 좀처럼 흙을 밟을 일이 없다. 아이들이 뛰노는 동네 놀이터도 흙바닥이 아닌 우레탄과 인조 잔디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일상이 흙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흙으로 꿈을 그리고 흙과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아름다운 동행·토우·마음에 담다 ‘아토맘’(대표 장순옥)이다.

흙으로 사람의 형상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생활 용구·집 등을 본떠 만드는 예술 토우(土偶).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데다 강좌를 이끌어줄 전문가를 만나기도 어렵다.

아토맘 공동체의 출범과 모든 진행 과정 하나하나에는 장순옥 대표의 정성과 배려, 함께 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윽하게 배어있다. 사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토우 작가다.

장순옥 작가는 지난 1978년 남편인 박병희 조각가가 대학원 논문 준비에 필요했던 금동반가사유상 실측을 위해 국립박물관에 함께 갔다가 만난 토우가 자신의 인생이 됐다고 한다. 1981년 첫 개인전을 연 것을 시작으로 무려 45년간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아토맘 공동체는 그간 장순옥 작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한국토우회 활동을 캘리그라피와 시를 쓰고 낭송하는 분야까지 확장하면서 본격 결성됐다. 특히,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모이자’ 공모에 선정되면서 매우 활발한 문화 활동 나눔을 펼쳐왔다.

장순옥 대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선정된 만큼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남윤정 총무를 비롯해 이춘애, 이정애, 안명숙, 조안나 회원 등 아토맘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 갔다. 바로 그 과정 하나하나가 배려와 협력의 공동체 활성화의 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총 12주의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알토란 같았다. 5회차에 걸린 토우 이론 및 실습 교육은 물론 △시 낭송 심화 교육을 위한 전문가(교수)초청 강의 △자신이 시를 직접 쓰고 낭송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시인 초청 강의 △압화를 이용한 컵 받침, 테이블 매트 만들기 수업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값진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 같은 열정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아토맘 공동체는 지난 2024년 8월 16일 대덕구 읍내동 참샘골 토우정원에서 제31회 아토맘 작품전을 열었다.

이날 작품전에는 회원 22명의 토우 작품과 캘리 작품, 압화를 이용한 컵 받침 등이 전시됐다. 특히, 인물이나 동물, 집과 예쁜 연필꽂이 등 저마다 자신만의 이야기와 마음을 담은 토우 작품들은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안명숙, 이정애, 이춘애 회원의 시 낭송도 펼쳐져 전시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아토맘 회원들은 토우활동과 캘리그라피 그리고 시 읽기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꽃차 만들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되새기는 친환경 의식을 고취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아토맘 회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문화 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흙을 만지며 행복을 전파하는 이러한 따뜻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토우의 세계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아토맘 장순옥 대표는 “비단 토우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활동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넉넉함까지 채워줍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풍미와 예술이 만나다

송촌동 '보보로 베이커리'

-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96(송촌동 447-3) / 042-632-0445
- 소금빵 2600원, 추억의햄버거 4700원, 피자치아바타 4700원, 폭신폭신몽블랑 5800원, 어니언바게트 6000원
- 영업시간: 07:30~22:00

밥 대신 빵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다른 지역의 맛있는 빵집을 찾아가는 '빵지순례'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등 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전 대덕구 송촌동 보보로 베이커리(대표 손창희)는 빵 마니아들의 '빵지순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빵 맛집이다.

종이 공작 등 어렸을 적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유달리 좋아했다는 손 대표는 제빵 관련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레 제빵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한다.

사진 속 차분해 보이는 외모에서 느껴지듯 손 대표는 배운 것에 멈추지 않고 반복과 재창조 등 성실함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노력파였다. 마침내 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을 증명하듯 전국 호두제품대회(파이부분 최우수상)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족족 상을 휩쓸었다.

대한민국 대표 빵 브랜드인 '성심당(로쏘(주))' 본점에서 근무하며 한층 더 실력을 끌어올린 손창희 대표는 대한민국제과기능장 자격까지 취득했다. 이후 그는 17세 소년 시절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성실히 준비해 왔던 자신만의 빵집인 '보보로 베이커리'를 지난 2015년 10월 이곳에 오픈했다.

80여 종의 빵, 과자 등을 판매하고 있는 보보로 베이커리의 대표 메뉴는 어니언 바게트, 추억의 햄버거, 폭신폭신몽블랑 패스츄리 등으로 가격도 2000~6000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무엇보다 맛이 일품이라는 게 고객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보보로 베이커리의 빵 맛은 결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고객들의 입맛을 정확히 읽어내고, 이를 반영한 빵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는 손창희 대표의 남다른 열정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보로 베이커리는 몸에 유익한 유산균 사용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과 우리 밀 전처리 사용하는 등 고객 중심의 빵집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창희 대표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 제빵업도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새로운 맛을 창조해 가려는 개척 정신도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한 공정, 깨끗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등 3대 운영 원칙을 철저히 실천해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보보로 베이커리'를 만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빵 기부는 물론 매장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 '복지만두레 나눔기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손창희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제과·제빵 대전 지역 명장이 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와 제품 개발에 더욱 집중할 계획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촌동에 삶의 터전을 삼아 이웃들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사랑과 정을 나누는 이웃공동체이자 지역 대표 빵집으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손과 정성으로 빚어진 국수의 참맛

송촌동 '지은수'

- 대덕구 송촌북로 12(송촌동 468-1) / 042-334-5894
- 잔치국수 6000원, 비빔국수 7000원, 수제돈가스 1만원 왕새우튀김(3마리) 5000원 돈가스안주 2만2000원 닭볶음탕 3만5000원(예약필수)
- 영업시간: 10:00~21:00(브레이크타임 15:30~17:00)
-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

한국의 대표적인 국수 요리 중 하나인 잔치국수. 밀가루가 귀해 생일, 회갑연, 혼례 등 경사스러운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여겨져 붙여진 이름이다.

잔치국수는 푹 끓인 멸치육수와 삶은 면 등 언뜻 보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간결·단순함 때문에 정교한 차이가 맛의 승패를 가르는 음식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정교한 차이에 포인트를 두고 오랜 기간 손님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음식점이 있다. 대덕구 송동촌 지은수(대표 전지은·박철우 부부) 이다.

잔치국수·비빔국수·수제 돈가스 등 딱 3가지 메뉴만 전문 취급하는 이 집은 상호부터 남다르다. 손맛의 주인공 전지은 대표의 이름 '지은'에 '손'을 뜻하는 한자 수(手)를 붙여 만든 것이다.

단출하기 그지없는 3가지 메뉴지만 그야말로 한땀 한땀 수를 놓는 마음으로 정성을 가득 담아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먼저, 잔치국수의 육수에 사용되는 멸치는 일일이 손으로 다듬는다. 내장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비린 맛과 쓴맛이 나기 때문이다.

남편 박철우 대표는 앉을 틈만 생기면 이내 멸치 다듬기에 여념이 없을 정도다. 그 덕분인지 국물 맛이 정말 진하고 깊어 기존에 먹던 육수와는 급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국수도 밀가루 냄새 없이 탱글탱글하고 쫄깃한 면발이 최고다. 여기에 표고버섯, 유부, 계란지단, 당근, 깨소금이 고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양도 어마어마하다. 비빔국수 양념장 역시 여러 종류의 과일을 갈아 넣은 독자적인 레시피를 개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수제 돈가스도 남다른 정성을 통해 만들어진다. 보통 일주일 단위로 도축이 이뤄지는 만큼 도축 당일 바로 고기를 들여와 일주일 내에 사용을 마친다. 신선한 고기만 사용한다는 이들 부부의 경영 원칙이다.

특히, 10가지 재료를 사용해 자체 개발한 소스는 돈가스의 풍미를 더해주고 있으며, 피클, 샐러드, 과일, 그리고 옥수수 등 소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눈길을 끈다.

맛도 뛰어난 지은수는 가격도 매우 착하다. 잔치국수 6000원, 비빔국수 7000원, 수제돈가스 1만원 등 고물가 시대에 너무나 착한가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1인 1식 현금으로 계산할 시 미니 김밥을 1인 1줄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편집자가 남는 게 있긴 하냐고 묻자 "솔직하게 남는 게 별로 없다"라며 겸연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전지은·박철우 부부는 "한 그릇의 국수이지만 따뜻함과 정성, 그리고 맛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고객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성장하는 지은수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덕구기관장협의회
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1969년 조성되어 대전 경제 발전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전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및 행정 재산 관리 운영과 입주기업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함께하고 있다. 올해로 54주년을 맞는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 2012년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선정, 2022년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이후 대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김종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나 대전산업단지의 현황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의 발자취, 그리고 향후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김 종 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Q. 대전산업단지 주요 현황과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대전산업단지는 대전 경제 발전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대화동, 읍내동 일원에 1969년~1973년 제1단지 조성, 1975년~1979년까지 제2단지가 조성됐고, 2012년 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 지역이 대전산업단지로 편입됐습니다. 입주업체 수는 1,076개 사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기계, 철강, 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되고 있습니다.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은 1971년 대전공업단지 진흥회를 시작으로 1979년 대전산업단지협회로 개편, 2018년 관리공단으로 승격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은 산업단지(입주계약 및 공장설립 등) 및 행정재산의 관리 운영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입주기업 지원사업 발굴 및 수행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지원사업 안내 △민원 및 애로사항 처리 △입주기업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대전산업단지가 그간 대전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크다. 지나온 발자취 및 성과, 아쉬운 점 등을 소개해 주신다면?

대전산업단지는 1969년부터 대전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대전시 외곽에 있었지만, 현재는 대전시 중심에 위치해 유성과 대덕구를 아우르는 중심의 산업단지가 됐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스마트그린촉진산업단지 지정 △시대적 변화에 맞서 주변 지역 편입으로 산단 면적 확대 △한샘대교 건설 △지식산업센터 건립 △청년창업임대공장과 복합문화센터&스마트주차장 건립 사업 등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구역 단계별 추진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전통제조업과 창의적이고 혁신의 벤처기업과 연구단지와의 협업 그리고 청년 인재들이 모여드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탈바꿈해 다시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대개조사업의 신속·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 및 대전시·대덕구 등에 수정·보완·개선 등을 요청할 부분이 있다면?

대개조 사업 선정 후 대전시 및 대전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등 유관기기관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4개 사업이 추가 선정돼 총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산업단지 발전을 위해 현재 선정된 사업 외 추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협력과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대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와 대덕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Q. 네번째 연임을 하시는 등 입주기업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계신데 비결이 있으신지? 내년 2월까지 임기이신데 올해 중점 추진 목표와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대전산업단지의 발전과 입주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이사장 취임 후 항상 강조해 왔던 부분으로 네 번째 연임은 대전산단의 발전과 성장하는 입주기업의 권익을 위하여 힘을 쏟아달라는 입주기업의 희망이 담긴 요청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취임 후 대전산업단지협회에서 관리공단으로 승격, 위탁받은 산업단지 관리 업무(입주 계약, 공장등록 등) 외 청년창업임대공장 등 행정시설 위탁 추가 관리, 다양한 정부공모사업 발굴 및 수행으로 6년간(2019~2024) 약 57억을 입주기업 대상으로 지원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리공단 임직원은 지금도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인 대외 협력을 통해 대전산업단지의 발전과 입주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관리공단의 내실을 다져 활력있는 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대전시와 대덕구 등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및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관리공단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환경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코자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사랑의 열매 기부와 대전산업단지와 인접한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주민 대상(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등)으로 지역사회후원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키트 지원, 대덕물빛축제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였고, 산업단지 내 환경 문제 관련하여 지자체 환경 부서에 민원 제기 등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추진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기업과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나눔경영 활동 실천으로 사회적책임(CSR)을 다하는 관리기관이 될 것입니다.

Q. 끝으로 대덕구민들에게 드릴 말씀과 당부사항이 있다면?

대전산업단지는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되는 산업단지입니다.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활성화 구역 개발 등 첨단화가 진행중이며,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역의 구역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대전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전산업단지와 지역사회가 더욱더 발전하여 청년이 유입되고 지역경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전산업단지가 대전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어 지역과 함께 발전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대덕구민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목 이 조례

폭염·한파 안전망 구축 앞장

조대웅 의원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기존 폭염으로만 한정한 지원 범위를 폭염·한파로 추가 확대한 게 골자다.
△폭염·한파 피해 예방 시행계획 수립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등에 대해 명시했다.
조대웅 의원은 "기후위기는 무더위뿐만 아니라 극한 추위에도 해당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와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세심한 관심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대웅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조례 등도 발의했다.

'예술도시' 조성 초석 다진다

양영자 의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이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역할을 규정한 데 이어 이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 사업을 자세히 보면 △예술 표현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증진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구제 등이 있다. 또 예술인에게 사회영역 전반의 풍요로움과 미래세대에 계승될 국가 유산의 창조와 발전이란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양영자 의원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위탁 남용, 의회동의 강화로 방지"

유승연 의원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와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게 골자다.
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사항에 △시작 6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새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 △중대 변경 상황 발생 시(3개월 이상 위탁 기간 변경, 소요 예산 30% 이상 증감 등) △해지 사항(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한 경우) 등을 담았다.
유승연 의원은 "의회 동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위탁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월 현재 대덕구에는 57개 민간위탁이 운영 중이다.

"청년소상공인의 꿈, 대덕에서 시작"

김기흥 의원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 조례는 지역 내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18~39세 소상공인(창업 준비 포함)을 대상으로 △경영지원-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창원지원-청년소상공인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 참여 촉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기흥 의원은 "청년은 우리 지역 사회·경제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이라면서 "경영 환경 변화가 경쟁 심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에게 다각도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장치 마련

박효서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비롯해 고충상담, 심리적 안정 지원, 처우·복리 증진,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담았다.
박효서 의원은 "보육교직원은 우리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와 걷기 좋은 도시, 대덕입니다"

이준규 의원

도시숲·모유수유시설 조례

도시숲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민 보건·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 등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모유수유시설 조례에는 시설·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이 목표다.
이준규 의원은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지역 곳곳에 조성해 대덕구가 사람·가족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 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 도시환경 연구회 출범

대덕구의회가 지역맞춤형 정책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

구의회는 지난 4월 9일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과제'와 '도시환경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 연구용역 과제'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와 '대덕구 도시환경 연구회'가 각각 출범해 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도시재생 거점시설 연구회는 지역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현황을 분석·진단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기존 거점시설과 향후 조성될 거점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도시환경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인구 유지 방안을 연구하는 대덕구 도시환경 연구회의 경우 대덕구 주도의 계획 수립으로 지역소멸 대응 정책 구축과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재원 투입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들 연구회는 5월 착수해 중간·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두 연구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 면밀히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

소외 없는 교통, 작은 마을부터 시작해야

박효서 의원

대전 북부의 관문 신탄진 지역은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대덕산업단지와 같은 경제 인프라를 품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청호, 계족산 황톳길, 산림욕장 등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신탄진 일대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대덕구청 이전이 예정된 연축지구 개발 사업 등 도시재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활기를 얻고 있다. 또한 대청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대덕물빛축제와 대덕 시티투어 등이 이뤄지면서 많은 이들이 신탄진 지역을 찾고 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등 굵직한 교통망 구축이 추진되며, 오랫동안 낙후된 외곽 이미지에 머물렀던 신탄진이 점차 대전의 중심축과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대전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변화의 중심에서 비켜난 여전히 소외된 곳이 존재한다. 신탄진 지역 내에서도 대청댐 부근의 소규모 마을들(미호동, 이현동 등)은 여전히 극히 제한된 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가령 미호동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대청호를 따라 운행하는 72·73번 시내버스 단 2개 노선뿐이다. 하루 몇 차례뿐인 버스 운행은 대전 시내와의 접근은 물론, 마을 간 이동조차 불편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이들 마을에선 버스를 타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현실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의 제약이 된다. 또한 교육, 의료, 문화 혜택에서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마을의 인구 유출과 고립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 광역 철도망과 도심 트램 도입 등이 지역 균형발전의 한 축이라면, 반대로 이런 소규모 마을의 교통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또 다른 축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대전시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기 노선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수요는 적지만 대중교통이 꼭 필요한 지역에 적합하며, 보다 유연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맞물려 그간 미뤄왔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수요 기반의 교통 개선을 위해서는 마을 단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

지금 신탄진 지역은 개발과 변화의 흐름 위에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발전은 모든 주민이 그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가 더 나은 도시를 꿈꾼다면 그 시작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의 발걸음부터 보듬는 것이어야 한다.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은 행정의 책임이며, 공공성 실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정동에 복합문화활동 꽃을 피우다

최은주 다온작은도서관장

최은주 대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실현
문화와 마을을 잇는 도서관, 사비로 운영… 선한 영향 환원 '눈길'
최 대표 "가족봉사단 만들어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 심어주고 싶어"

최 은 주
다온작은도서관장

옛날 우리 조상들은 농한기가 되면 동네 사랑방에 모여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짜면서 구수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을 지새우곤 했다. 한동네에 살면서 서로를 챙기고 돕는 끈끈한 유대감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덕구 오정동에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 동네에 비영리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문화 사랑방'을 만들어 나가는 인물이 있다.

바로 다온작은도서관(한밭대로1009번길 18, 3층)을 운영하고 있는 최은주(47) 대표다. 지난 2024년 2월 개관해 어느덧 1년을 훌쩍 넘겨버린 이곳은 오전에는 어르신들 대상 문화 강좌, 오후에는 아이들의 독서지도 등 수업이 진행된다. 또, 집 근처에 있다 보니 학부모들이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온작은도서관의 탄생은 오롯이 최은주 대표의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사는 마을 오정동을 소위 '문화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외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최은주 대표는 "주거지가 조성된 지 워낙 오래돼 아이들은 물론 중·장년층들도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문화프로그램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학부모 등 주민들이 서로 만나 배우고, 읽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라며 작은도서관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피시방 등을 전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한다. 자신 역시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학부모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마을 주민 모두가 서로 돕고 협력한다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학부모들 각자가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고 시간을 투자해 마을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생각에 적극 공감한 학부모들과 함께 최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재능기부 등으로 마을 아이들을 돌봐왔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이 같은 활동이 마을에 작은 변화를 끌어내기 시작하자 최은주대표의 열정은 더욱 불타올랐다.

하지만 결국 모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문제였다. 이에 최은주 대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된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현재의 자리에 다온작은도서관을 설립한 것이다.

사비를 들여가며 이러한 열성으로 문화공간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을 터. "무슨 자선사업 하시느냐?"라는 필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함박웃음으로 화답했다.

때마침 대덕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특히, 책 기증과 봉사 등 열성적으로 챙겨주시는 주민분들이 계셔 무한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다온작은도서관의 진정한 주인은 주민 모두라고 늘 강조한다.

하지만, 건물 임대료와 공과금 등 매월 100만원을 웃도는 운영비는 온전히 최 대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방과 후 학교 강사 활동으로 번 돈을 고스란히 다시 사용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라는 최은주 대표는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기 아이들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받은 선한 영향을 사회에 다시 환원해 보다 밝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입니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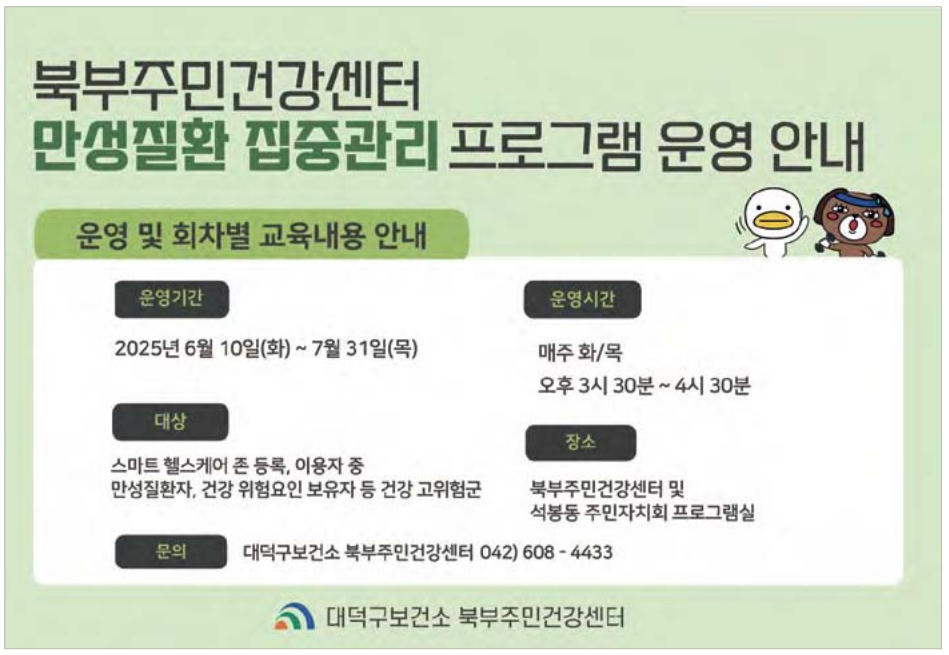
최 대표는 IMF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 모두가 식당 일에 매달릴 때 한 단골손님이 책에 열중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 꼭 대학 진학에 성공하라"며 큰돈을 쥐여 주셨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단골손님에게 받았던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고 한다.

최은주 대표는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다 같이 참여하는 가족봉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고 싶습니다"라며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이 좋아 시작한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방이자 서로서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복합 독서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대덕구가족센터
DAEDEOKGU FAMILY CENTER
NOTICE
2025 상반기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문화이해교실
각 나라 강사가 직접방문하여 문화이해수업과 문화체험을 진행해요~!
대 상
대덕구 내 어린이집(만 4세 이상 / 21년생 ~),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이용자
내 용
다문화 이해교육 및 체험활동
(각 나라 전통의상 , 놀이체험 등)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대덕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이메일 혹은 팩스로 회신
(이메일: ddmwctr@hanmail.net / 팩스: 042-639-2667)
문 의
대덕구 가족센터 임미선 (042-639-266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 주변 위험 요인을 신고 할 수 있어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점검기간
2025. 4. 14.~6. 13.
행정안전부


북부주민건강센터
만성질환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안내
운영 및 회차별 교육내용 안내
운영기간
2025년 6월 10일(화) ~ 7월 31일(목)
운영시간
매주 화/목
오후 3시 30분 ~ 4시 30분
대상
스마트 헬스케어 존 등록, 이용자 중
만성질환자, 건강 위험요인 보유자 등 건강 고위험군
장소
북부주민건강센터 및
석봉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
문의
대덕구보건소 북부주민건강센터 042) 608 - 4433
대덕구보건소 북부주민건강센터

사람을 더하세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 109문자 메시지 / 카카오채널)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42)931-1671
생활 속 도움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서민금융콜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청소년·청년·여성의 고민
청소년 상담 1388
전화상담/사이버상담/문자상담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개
카카오톡/앱/1661-5004 문자상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
푸른나무재단 전화상담
국방헬프콜 1303
전화상담/사이버상담/APP상담/카카오채널
온통청년 www.youthcenter.go.kr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전화상담/사이버상담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덕구 보건소
대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하나만 신청
500원
두가지 모두 신청
1,000원
지방세 전자송달이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사서함,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받는 서비스
신청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송달 신청
pay
자동납부 신청
wetax
❶ 전체메뉴 ❷ 신청 ❸ 자동납부
세액공제 대 상
1월 | 등록면허세(면허분) 6월 / 12월 | 자동차세
8월 | 주민세(개인분) 7월 / 9월 | 재산세
적용시기 신청일의 다음달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
유의사항
• 지방세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모든 지방세는 납부 후 납부취소가 불가합니다.
• 전자고지서는 부과 월에 발송되며 납기가 지난 체납자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계좌 잔액 부족, 신용카드 정보 변경 등으로 자동납부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지연 가산세가 포함되어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문의 | 대덕구 세정과 042-608-6241

2025
가족사랑편지 영상·수기 공모전
폭싹 속았수다!

공모기간
25.05.02(금) ~ 06.14(토)

수상 발표
25.07.01(화)

시상식
25.07.05(토)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모주제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편지
(영상 또는 글)로 전하기

지원자격
대전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가족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이메일접수
(mother5297@naver.com)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만족도조사서, 영상(MP4) 또는 수기 파일 (HWP 또는 PPT)
*대덕구육아복합마더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공모유형
- 영상 콘텐츠 (동영상)
- 분량 : 2분 이상 3분 이내
- 형식 : mp4파일로 제작
-편지 내용과 동영상 또는 사진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으로 제작 가능
- 가족편지 (수기)
- 분량 : A4 2페이지 이상 5페이지 이내 한글파일 또는 5페이지 이상의 ppt파일
(관련사진, 그림 등 첨부 자료가 있는 경우 포함)

시상내역 : 영상,수기 각각 시상(총30명)

구분	수상	수상내역
대상	각 1명	10만원 문화상품권
최우수상	각 2명	5만원 문화상품권
우수상	각 6명	3만원 문화상품권
감동상	각 6명	2만원 문화상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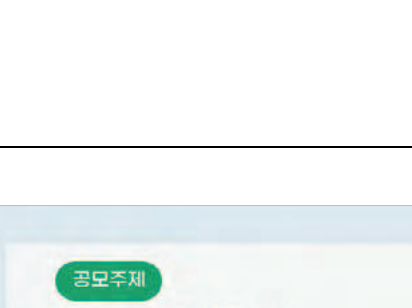
제28회
동춘당 문화제
Dongchundang Culture Festival

2025. 5. 10. 토 10:00~20:30
동춘당 역사공원 일원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80)

느껴 봄	놀아 봄	걸어 봄	즐겨 봄
숭모제례 10:30~11:30 동춘당	동춘 장터 10:00~20:30 원형마당	역사문화탐방 14:00~17:40 동춘당 공원 일원	동춘 장터 거리공연 13:30~18:30 원형마당
유교경전암송 11:30~12:30 동춘당	동춘당 게임 14:30~17:00 원형마당	문정공시호봉송행렬 18:00~18:50 법동초→원형마당	동춘 버스킹 14:00~17:30 동춘당
동춘당의 유교인문학 이야기 15:00~16:30 대전무형유산전수교육관 공연장			늘봄 콘서트 19:00~20:30 원형마당

주최 대덕구 주관 대덕문화원 회덕향교 후원 대전광역시 하나은행 비봉서당 문의 042-627-7517(대덕문화원)

사망원인 1위 암!
국가암검진 지금 받으세요!



검진주기가 2년인 암종, 2025년은 **홀수 해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대 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 **무료**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57,000원 이하
건강보험가입자 중 상위 50% ▶ **본인부담금 10%**(검진비 90% 지원)

검진항목

암 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여	2년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수면비 유료
간암	만 40세 이상 남·여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간초음파검사+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여	1년	분변잠혈검사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수면비 유료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 남·여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검진기간 2025. 1. 1. ~ 2025. 12. 31.
*연말에는 검진대상자가 집중되어 예약 및 검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진방법 전국 암 검진기관 병·의원 **사전예약 필수, 신분증 지참**

문의전화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대덕구보건소 ☎042-608-5490

※ 보건소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을 참고해주세요.

검진기관 찾기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 기 간 : 25. 5. 12.(월) ~ 5. 30.(금) / 3주간
- 대 상 : 동물등록 된 3개월령 이상된 건강한 개와 고양이
- 사 업 량 : 500마리
- 접 종 비 : 마리당 5천원(자부담)
- 접종 방법 : 반려동물 동반해 지정병원 내방
- 접종 장소 :

동물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송촌선비동물병원	대덕구 송촌북로4번길 15(송촌동)	042-637-7572
로하스 동물병원	대덕구 덕암로265번길 31(덕암동)	042-935-7509
신탄진 동물병원	대덕구 신탄진로 797 (신탄진동)	042-931-7582
이승재 동물병원	대덕구 신탄진로 842(신탄진동)	042-932-0970
추영재 동물병원	대덕구 한밭대로 1017(오정동)	042-628-7588

※ 선착순이므로 조기 소진 가능
※ 병원마다 배정량 차이가 있으니 확인 후 방문 권장

문 의 :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042-608-6953

이동노동자, 주민 모두 함께 누리는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

대리운전, 배달, 택배, 퀵, 이동강사, 수리기사 등
주 업무가 특정장소가 아닌 '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분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대 상 이동노동자 및 대덕구민
운영시간 월 ~ 금(토, 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 13:00 ~ 익일 6:00
이용시설 휴게공간, 여성휴게실, 회의실 등 편의시설 구비
문의전화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 ☎042-673-8532